

후 제 4매체로 진입하면서 언론 출판 정보의 혁명과 함께 시민사회의 출현을 보게 된다. 이 사실은 서양이 동양보다 인본성을 한 단계 앞서 실천한 소치이기도 하다. 제 4매체로서의 신문, 방송, 잡지, 영화 등 공학기술을 응용한 아날로그 매체는 기존 정보 의견의 유통 혁명을 가져왔을 뿐 아니라 자유와 권리 신장에 중요한 감시자, 보루 뿐 아니라 국가의 질서를 경계하는 제 4부의 역할까지 하게 된다.

제 5매체인 사이버 매체 계보는 제 1, 2, 3, 4 매체 계보의 기존 커뮤니케이션 체계에 근본적인 혁명을 가져온다. 디지털 공학기술 원리에 의하여 사이버 공간에서 시간과 공간의 한계를 넘어 지구촌 전체를 정보 권역화 한다. 개인의 자유로운 참여와 교류가 양방향 실시간으로 이루어진다. 제 4매체의 질서와 함께 제 5매체는 새로운 양식을 구사하고 현실과 가상 공간이 동시에 융합되는 시대로 진입하고 있다. 제 4매체까지 구축해왔던 언론 출판 정보의 제도화에 대한 개선과 혁신은 불가피하다. 이러한 현상에 대하여 너무나 빨리 변혁이 일어나고 있으며 실생활 속에서 실험하고 검토할 시간도 없이 가속적으로 표현 질서의 변혁이 오고 있다.

IV. 서양의 speech, press, information 생태와 계보

우리 사회에 서양의 언론 출판 자유가 소개되고 헌법이나 사회 연구에서 소개 또는 제도화된 부분을 살펴 보면 “speech”는 “언론”으로, “press”는 “출판”으로 번역되고 있다. press는 그후 정기간행, 신문 등의 의미로 사용된다. 이러한 한국의 언론 출판을 재검토해 보기 위해 먼저 서양의 사상적 구축 계보를 살펴보기로 한다.

근대적 언론의 자유(freedom of speech)의 가장 원형은 그리스에서 출발하여 18세기 영미 대륙의 시민 사회 성립과 함께 제도적으로 정착하게 된다.

플라톤의 <공화국>에서는 공동체(community)의 원만한 성립에 언론의 자유(freedom of speech)가 보장되어야 함이 강조되고 있다. 시민이 참여하는 직접 민주주의 정치에서 자유로운 의사 표현이 보장되었다. 단지 여성과 노예의 참여가 사회적으로 보장되지 않았다. 이 당시 언론이란 연설, 토론, 논쟁 등이 모두 포함된 개념임을 추정해볼 수 있다. 수사학은 지식의 생산에 중요한 위치를 점한다. 소크라테스의 산파술은 수사학적 기교에 의한 무지의 각성이다. 인간은 이성(rationale)을 가지며 이는 언론(speech)에 의한 자기 각성을 유도하는 방법이다.

중세는 신에 대한 예종이 심화되면서 인간의 창조성·가능성의 발견과 이의 실천을 오히려 후퇴시켜 놓았다. 신의 섭리를 전수 받아 실천할 수 있는 성직자만이 이성의 합리적 실천을 할 수 있는 계층이 된 것이다. 인간 상호간의 교류나 언론에 의한 합리성과 계몽에 의한 무지의 발견보다는 신의 섭리를 따르는 계율의 실천이 중심이 되었기 때문에 인간 중심의 언론의 역할은 퇴보하게 되었다.

종교개혁과 르네상스의 촉진과 함께 출판과 언론 혁명이 전개된다. 구텐베르그의 금속활자 발명은 성직자, 수도승 등에 한정되었던 성경과 지식을 대중화 할 수 있는 계기를 열어 놓는다. 귀족을 비롯한 특정 계층 향유의 지식이나 정보가 점차 확산되는 시대를 맞이한다. 시민 사회의 형성 과정에 인간의 표현 활동은 언론의 자유(freedom of speech)와 출판의 자유(freedom of press)로 이원적으로 제도화된다. 인간의 표현은 말하기(speaking)와 쓰기(writing)를 본질로 한다.

언론의 자유는 영국의 의회를 중심으로 투쟁의 역사가 전개된다. 언론(speech)은 왕의 통치권에 속하는 것으로 의회는 한정된 범위 내에서만 발언이 가능했다. 웬트워드(Peter Wenterworth)는 의회 내에서의 언론 자유에 대한 면책 특권을 얻어내는 데 공헌한 인물이다. 언론의 자유는 공중이 언어 문자를 이용하여 의사를 표현하는 자유이며 명예혁명 이후 사회적인 차원에서 정착된다. 밀(John Stuart Mill)은 <자유론(On Liberty)>에서 토론(discussion)의 자유론을 전개하는데 언론의 자유의 구체화된 사례라 할 수 있다.

서양에서 출판(Press)이 제도화 해온 생태를 살펴보면 printing press, newspaper press, periodical press 등으로 계보화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언론’으로 번역해버리는 것은 문제가 된다. press가 무엇을 지칭하는가에 따라 대응하는 의미에 적합한 어휘로 번역해야 한다. 구텐베르그 금속활자 발명은 서양의 종교개혁과 근대성 실천에 핵심적 역할을 맡는다. 우선 도서의 간행은 지식의 대중 보급에 기여하게 되는데 인쇄 출판(printing press)을 말하며 절대왕권을 수호하기 위하여 통제가 가해진다. 밀턴의 “출판의 자유를 위한 <언론(speech)>”은 인쇄 표현에 가해지는 속박에서 벗어나려 한 것이다. 시민 사회의 성립 과정에 정보와 의견 전달을 위한 정기간행물이 간행되는데 newspaper press이다. newsbook, tract(소책자), newsletter 형식으로 간행되다가 정기적 간행이 이루어지면서 신문으로 정착하게 된다.

서양에서 freedom of speech와 freedom of press는 제각각 전통을 구축해오고 있으므로 양자를 모두 언론의 자유로 인식하고 번역하는 것은 타당하지 못하다. 언론이라는 공통성은 내재하고 있지만 매체의 특성을 살린 이름을 그대로 사

용해야 혼돈을 피할 수 있다. press는 정기간행물 또는 신문의 경우 opinion과 information을 동시에 내재하기 때문에 언론으로 단정해버릴 수는 없다. 신문 잡지와 같은 정기간행(periodical press)은 편집에 의하여 언론이 성립되는 양식으로 언론의 기능은 내재하지만 언론으로만 한정할 수는 없다.

V. 한국 언론 출판 정보의 계보

언론의 규정을 위하여 먼저 당시 언론 개념의 활용을 계보화 해보기로 한다. “언론”을 언급한 근거는 이미 기층적으로 있어온 언론 개념의 활용과 개화기의 언론 개념, 그리고 영미의 speech, press와 대비가 되기 때문이다. 전통적으로 한문 활용에서부터 있어온 기층 언론과 개화기 이후 성립되는 근대 언론의 생태를 관찰해 보기로 한다.

개화기의 외래어 번역은 아직 정착되지 않은 상태였으며 사회적 인식 간극 역시 대단히 컸음이 입증된다. speech, press와 신문잡지 간행의 제도화와 상호 계보 관계를 생태구성의 시각에서 재음미하면서 독립신문의 출판과 실제로 기사화된 언론 개념을 연관지어 분석해본다.

용례를 중심으로 추정해보면 개화기에 speech는 언론으로 press는 출판 또는 신문 출판으로 번역하였다. 서재필의 독립신문 역시 이러한 범위를 벗어나지 않고 있음이 기사에서 입증된다. 서양의 speech와 press를 엄두에 둔 것으로 판단된다.

언론이라는 말은 장구하게 통용되어온 어휘이다. 개화기에 speech 사상이 전래되는 과정에 언론으로 번역되면서 형식은 전통을 전수하고 본질은 서양의 근대 speech를 따르는 전환기적 생태 변환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동양에서 “언론”의 특성은 의사 표현 방법 중 가장 철학적이고 논리적이며 체계적이다. 언어로 표현하는 행위 중에서도 언론은 가장 정수성을 띤 개념이라 할 수 있는데 서양에서 공공성을 띠는 speech를 언론으로 번역한 것은 기저의 인식론적 유사성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 기반언론

기반언론이란 서양의 free speech, free press 사상 수용 이전에 토착화 되어온 언론 개념을 말한다. 기반언론의 용례를 살펴보면 “言論”이라는 외형적 형식은 동일하지만 실제로는 철학적 의미가 다른 용례로 계보화해 볼 수 있다.